

[책자형 홍보공보 제21대 국회의원 중구선거]

울산공단건설의 주역
4차산업혁명의 리더

무소속

9이철수

평생야당 [현 무소속] 최후심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구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9	무소속	이철수	남	1946.08.10 (73세)	울산사회 교육연구소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전 울산공단(한국카프로 락탐 건축감독)건설 ·현 울산사회 교육연구소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255,004	1,845,504	150,500	0	259,000	육군 이병 (소집해제)	장남 : 육군 중위 (만기전역)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05,103	0	0	·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2010.12.15)
후보자	44,600	0	0	
배우자	2,560	0	0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57,943	0	0	

4. 소명서



울산공단 건설의 주역 중구를 재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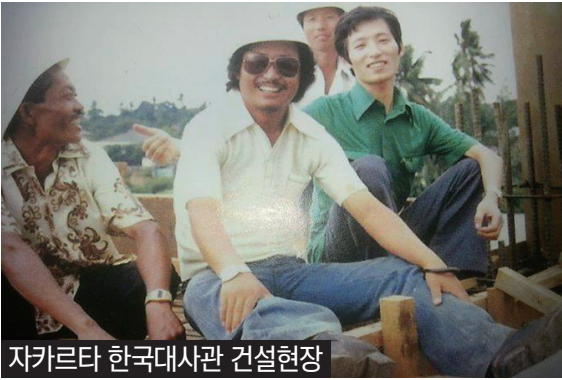
무소속 이철수 출사표
지역당 공천권 특수, 비례대표 나눠먹기, 광화문 촛불팔이도 이제 끝장!!!

저는 울산공단을 건설한 특급건축기술자로서 태화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입니다. 산업수도, 국제공업도시 건설의 비전을 안고 동남아 중동 등 해외건설 시장개척, 현장소장 임무를 마치고 귀향, 1988년 신군부 독제하의 정치적 대변혁기에 치러진 지난 13대 총선에 경남의 정치 1번지 울산시 중구에 민주당의 후보가 두명이나 공천을 받고 달아나고 현역 의원마저 서울로 옮겨가고 거물 도지사 장관 출신 정치인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될 지경에, 이를 지켜보던 이철수는 고향 민주화의 기수요 투사로서 울산 민주주의 보루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유일 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열혈 41세 젊음은 ‘새시대 새사람’의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울산 건설을 호소하며 유권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으나

관련 무더기 투표 부정 폭력선거로 석패한바 있습니다. 울산민주화 30년 역사의 산 증인은 7전8기의 정신으로 출사표를 올리며 '장기집권 지역당 공천권 특수, 촛불팔이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철수는 호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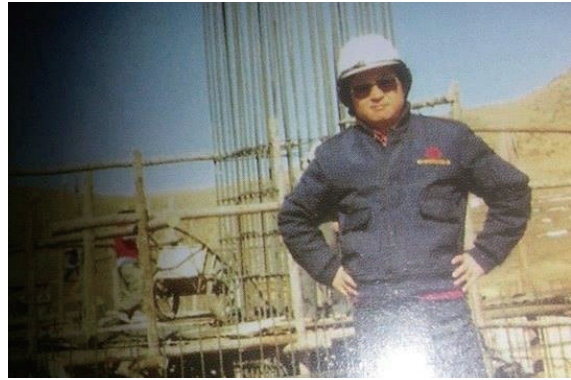
제가 32년만에 국회에 입성하고자하는 까닭은 정의롭고 양심적인 정치, 단 한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바른정치의 모범을 보여주고 울산의 썩고 병든 정치 풍토를 개량, 개혁하고자 함이요, ‘태화강의 기적’의 산실 울산의 중심 중구가 잃어버린 30년 영광을 되찾도록 울산공단 건설의 주역 이철수는 다시 제4차산업혁명의 기수로, 제2 태화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기 좋고 인심 좋던 내 고향 울산에 제 일생 마지막 봉사로서 여기며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자카르타 한국대사관 건설현장

지난 30여년 울산의 국제화 산업수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쿠웨이트 건설현장에서 귀향하여 뒤쳐진 지역 외국어 교육에 매진하여 외국어학원 1호 등록 후 1986년부터 미래 한국을 이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울산 교육을 세계에 선양하기 위해 매년 한국 최초 유일의 ‘국제어린이축제’(세계32개국 200명 어린이 참여)를 개최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가 융성 발전할수록 더 많은 나라의 외국인 기술자와 가족 그리고 자녀들이 울산(현대외국인학교)에 공부하며 본 행사가 성황을 이루었고 반대로 지금(현대중공업의 법적분할 후 11개국 30명 학생)처럼 불황에 산업이 위축 될수록 참여국 어린이는 축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울산사회교육연구소 설립하여 열악한 울산의 교육 문화 향상과 지역 모든 대학에 출강하면서, 소외된 이웃의 봉사활동과 저술, 문학, 언론 창달에 진력했습니다.

DJP (김종필 김대중)연합이 집권당이 되니 JP와 함께 십수년간 야당인 신민주공화당, 자민련 중구지구당 위원장이었던 내 자리에 그동안 여당이었던 자가 뛰어 들어와 한번 여당은 평생여당이라며 중구청장 후보가 되더니 “선배님은 국회의원하고 중구청장은 나를 주세요” 하더니 낙선하자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다선의원이 되더군요, 지난 20대 총선에 야당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맡아 국회의원 후보로 외로운 선거를 치룬 후 패전지장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자 말자 그동안 타당 후보를 돕는다며 통 보이지 않던 전 지역위원장이 나타나 또 내 자리를 차지했으니,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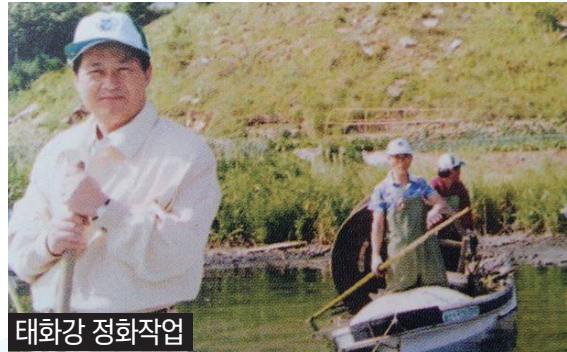
재 학교 후배이자 정치 후배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울산 썩고 병든 정치 풍토이자 비정한 현실이라면 과연 누가 미래 울산의 바람직한 정치풍토를 개량하고 개혁할 과제를 떠맡아야 하겠습니까?

울산의 중심 중구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부자 부럽지 않았던 곳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지 십 수 년이 흐른 오늘지역 현금청산자 대책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정평가도 없이 재개발 시작 단계에서 실시했던 종전자산평가의 보상액에 쫓겨나며 전세 조차 구할 수 없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시켰다고 청산자대책위는 절규합니다. 잃어버린 30년! 공업입국의 상징인 울산공단 건설의 산실이었던 경남 울산의 중심, 중구가 왜 이렇게 침체되고 5개 구군 중에서도 최하위 저개발구 슬램화로 몰락 해 가는지요? 실패한 도심 재개발 사업, 원천적 설계부터 잘못된 혁신도시 건설, 태화, 우정시장 일대 침수지역의 조속한 재해대책과 연계한 필생의 태화강종합개발사업 등 산적한 문제를 긴 안목을 가지고 도시공학적인 기반에서 100년지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울산의 침체된 서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물론 중화학공업의 재도약도 필요하겠으나 한때 한국제일의 건설시장이었던 산업도시 울산의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가 시급한 실증입니다. 저의 원대한 개발 청사진은 제가 13대 총선때부터 공약으로 제세했던 태화강 종합개발사업 즉 태화강수로 개통 골재채취, 제2사연댐 구축 식수 전용 반구대 암가화 침수 해결은 물론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인 세계문화 유산 UNESCO 등재입니다. 겹쳐 태화강 국가정원을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하기위해 태화산에서 남산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도 연관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약 5천억원에 연간 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철수는 노동운동의 메카 울산의 1988년, 민주화운동의 총 본산이었던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가 사무실도 없이 쫓겨나 거리를 해맬 때 그들에게 내 집(현대의국의 학원) 3. 4층을 내어주고, 온갖 집권세력의 핍박과 회유를 물리치고 때로는 테러와 경찰의 장기간 건물 봉쇄에다 학원 폐쇄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을 보듬고 지켜주며 5년 후 스스로 좋은 건물을 얻어 나갈 때까지 함께 했기에 훗날 울산은 한국 노동운동의 메카라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태화강 정화작업

어느덧 최후심판을 받겠다고 나선 까닭은 부도덕한 정치 패거리들과 기회주의가 판을 치는 썩고 병든 울산의 정치 풍토를 갈아엎고저 합니다. 이철수는 울산 최고참 정치 선배로서 울산의 정치도의와 윤리를 바로잡고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남은 열정을 불살라 내 고향 울산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마지막 봉사를 다하려 합니다. ‘태화강의 기적’의 산실 울산의 중심 중구가 제4차산업혁명의 기수로 다시 한번 제2태화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공약을 실천하고, 살기 좋고 인심 좋던 내 고향 울산에 제 일생 마지막 봉사로 여기며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철수의 공약(公約)

1 태화강 종합 개발 대역사 시공

제2사연댐건설, 식수(生命水), 암각화 보존. 수로 개통, 경제적 파급 효과 1조원

태화강 물을 생수로 먹고 자란 소년은 어른이 되어 다시 이 강물을 우리 자식들이 마실 수 있는 생명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준엄한 역사의 명령을 받았다. 기적의강 태화강 물을 1급수로 만들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건설경기 회복 없이는 불황을 타파할 수 없기에 32년전부터 제시한 태화강 개발의 대역사는 경제적 파급효과 1조원 골재수입 3천억원과 3천개의 일자리 창출의 대 역사를大役事를 시행 할 것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하기위해 태화산에서 남산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 이 연관 사업으로 한국 제일의 건설시장이 회복되고 경기 침체를 벗어날 특단의 조치입니다, 13대 총선부터 제시한 저의 이 숙원사업은 당시 교통지옥 울산 중구,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 방어진(장생포)에서 태화루, KTX역까지 뱃길 쾌속정 개통은 최근 정치 후배들까지 이 계획을 계승 한 듯 모당의 중앙당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2 중구의 '국가정원'과 연계 태화산 정상에서 남산까지 케이블카 설치 1000만 관광 시대 국제관광도시로

태화산 정상에서 남산까지 케이블카 설치 올해의 관광도시에서 국제관광도시로 태화강 국가정원을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하기위해 태화산에서 남산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도 연관 사업으로 종합 관광 발전전략을 수립해 중구를 1000만 관광객 유치 산업수도의 중심 국제관광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3 태화우정시장 항구 수해 방지대책

저류지 3개소 증설(위치 : 입화산 아래 원유곡, 길촌, 평동) 명정천 점유도로전용 및 오산대교 하부도로는 원천적 부실 설계, 부실시공 하자보수, GS마켓 펌프장 설치 및 고도배수터널 공사 위치 공법 변경 4년 임기 내 완공.

현재 공사중인 명정천 도로전용 및 오산대교 하부도로는 금일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로 명백한 원천적 부실 설계의 부실시공임을 밝히며, 지금도 비만 오면 밤잠을 설친다는 태화시장 상인들의 씨름을 알고도 오면하는지? 500여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차바 태풍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도 진전을 보지 못한 무능을 고발하며 저는 4년 임기 내 이 공사를 완공합니다.

4 평생교육도시 중구에 구 중부도서관 규모 2개소, 국제중학교, 국제어린이축제 (International children's festival) 교육 문화 선양

구舊, 중부도서관, 규모의 현대적 시설의 2개 도서관 신설로 자년들, 부모들이 함께 뛰고 독사하며, 놀고 즐기는는 공간을 확보 에 듀테인먼트(edu-tainment) 시설, (현 시립도서관은 접근성, 환경불비 악취문제 등 해결 과제 임).

이제 평생교육 중심도시 중구에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전통적이며 국내 유일한 국제어린이축제를 세계적인 규모로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의 교육문화를 선양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을 하고 외국인 사택과 외국인학교를 매각하기 전 조선 호황기에는 울산 '국제어린이축제'에 세계 32개국의 200명 어린이들(지금은 11개국의 36명 재학생)이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축제'를 제가 매년 개최한 이유는 울산 공업도시에 보다 많은 외국의 엔지니어와 그 가족들이 울산에 와서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들고 수리하고 자동차 화학제품도 수입하면서 울산의 우수한 교육환경 속에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며 산업수도 울산의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 및 국제친선까지 도모.



5 공공보건의료원, 노인전문요양센터, 중증 장애인, 소외계층 지원센터 확충

착공 단계의 산재 전문 공공 병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요리를 제공하고 심신장애인, 중증 장애인, 중증 희귀병, 노약자를 위한 돌봄센터, 공공의료, 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복지시설, 소외계층 지원센터 확충하며 복지회관의 시설을 개선 평생교육을 받고 여가를 선용 할 수 있도록 함.



6 청년문화광장 조성 및 청소년선도수련관, 어린이회관 건립

청년들의 문화 공간을 확충 젊음의 거리 소방서 앞 문화광장을 조성, 버스킹 공연,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국가 청소년 보호 정책 기조에 맞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울산'의 비전을 품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선도수련관을 건립하며 미래 울산의 주인이 될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산업수도에 버금가는 국제수준의 어린이회관 건립.

7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를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지식서비스산업

4차산업혁명의 lot,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 에너지산업, 드론, 핀테크, 가상현실 등 그로별 강소 기업 육성, IT, AI, 인공지능, 스마트 디바이스 sw & 솔루션 미래성장엔진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지식기반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 지식& 미래 산업기술기반산업을 유치 육성. 일렉드로겐 오토펠리(electric(전기) + hydrogen(수소) + auto valley)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스마트 팩토리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

8 국립공업역사박물관 건립

우리나라가 전후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가진 국가로 성장한 과정을 기록하여 담고, 앞으로 인류의 산업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제언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시관이자 교육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배우려는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세계적 규모로 운영도 국가가 맡아야만 한다. 설립 장소가 울산이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박물관에서 태화강의 기적을 이룬 과거와 미래를 보고, 전국 최대의 국가공단에서 그 역사와 오늘의 한국 산업수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21대 국회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세비와 보좌관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무능 부도덕한 의원의 국민소환제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알고어(Al Gore) 미국 부대통령과 함께

무소속 9 이철수

제 일생! 마지막 봉사로 여기며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중구 가 잃어버린 30년의 영광을 되 찾도록 울산공단 건설의 주역 이철수는 다시 제4차산업혁명의 기수로, 제 2 태화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기 좋고 인심 좋던 내 고향 울산에 제 일생 마지막 봉사로 여기며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야당 32년만에 국회에 입성하고자 하는 까닭은 정의롭고 양심적인 정치로 단 한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바른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고 울산의 썩고 병든 정치 풍토를 개량, 개혁하고자 합니다.

학력 및 약력

학력

울산초등학교, 제일중, 부산공고, 한양공대(건축공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석사)

약력

- 전 울산공단건설(한국카프로락탐 건축감독)
- 중동, 동남아 건축현장소장(경남기업, 국제종합건설 해외기술부장)
- 13대(신민주공화당), 20대(더불어민주당) 중구 총선 출마
- 울산사회교육연구소 설립(외국어학원1호 등록)
- 울산대·울산과학대·영산대·춘해대·폴리텍대 객원교수 / 학성중 교사
- 1986-2019 국제어린이축제(32개국참가)개최 조직위원장
- 한국해비타트(HABITAT) 이사 / 국제기아대책기구(홍보대사) 이사 역임
- 울산극동방송 이사, 울산포스트 주필
- 태화산 배수터널공사 및 태화·우정시장 수방 비상대책위원장

이철수 칼럼

- 1권 태화강의 기적(1989)
- 2권 울산의 주인은 누구인가(1993)
- 3권 저 언덕을 넘어서(1997)

시집

- 태화강변은 아름다워라

수필집

- 다시 찾은 태화루

전자소설

- 울산포스트 신문 연재: '아망의 개질',
- '유권무죄 무권유죄' 외 다수.